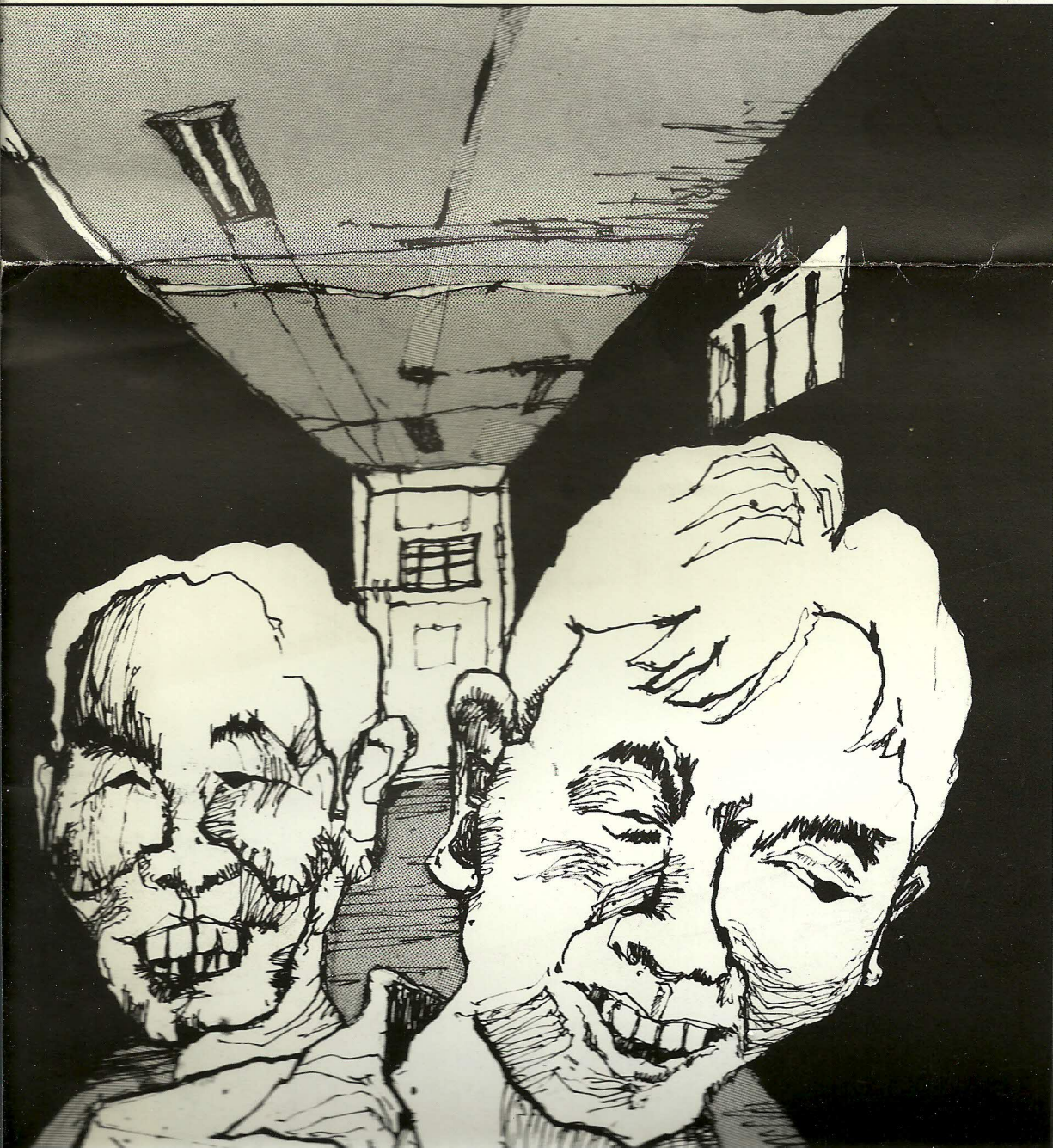




박재현의 춤

열병

熱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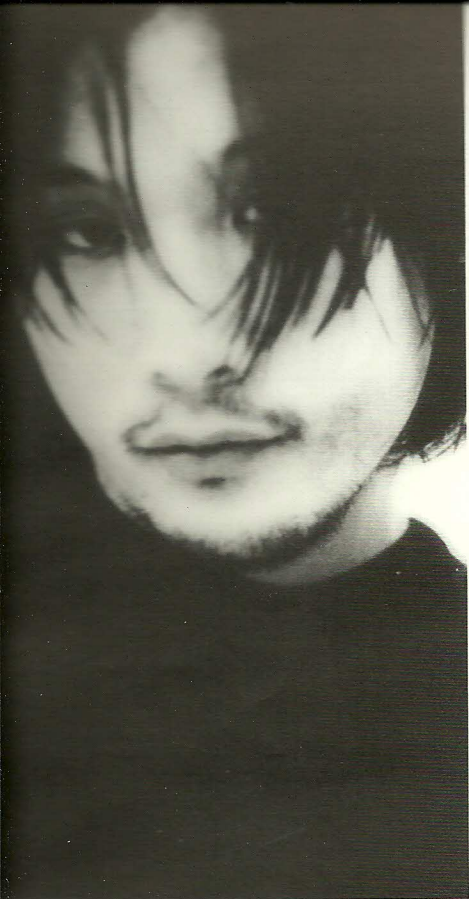


2003. 05. 16. Fri.

p.m. 7:00

[민주공원 소극장]

공연문의 051_510_1740, 019_380_3378



처음 학원 문 앞을 들어서던 날...

그 시절의 흥분과 기쁨은 지금도 기억합니다...

헤헤!! 내가 개인공연을 하다니...내 자신이 뿌듯하고 한편으로는 부담이 됩니다.

아직 서툰 작품이지만 날 힘껏 도와준 우리 무용수들(별로 힘은 안됐지만)

너무 감사하며 고맙습니다.

안무자 입장에서 공연을 작업하다 보니 한없이 부족한 절 발견했습니다.

아직 철없는 아이지만 분명히 힘찬 작품 공연을 올릴거며

여러분의 큰 기대에 꼭! 꼭! 부응 할겁니다. 화이팅!!

박재현

■2002 창원대 무용과 졸업

■2002 부산대학 무용학과 대학원 입학

■2000 부산KBS무용콩쿨 대상수상 등 다수의 수상과 공연

■현, 부산대학교 무용학과 대학원 재학중

따뜻한 햇살과 산뜻한 봄 내음이 물씬 풍기는 5월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무용 애호가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박재현군의 개인 공연을 볼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축하를 보냅니다.

이 공연의 박재현군은 본교 재학중

KBS부산 콩쿨 대상을 받아 학교의 명예를 드높였으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무용에 대한 열정을 꺾하지 않고

성실한 모습으로 선후배간에 모범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현저히 늘어난 무용과 깊이있는 춤으로

이렇게 개인공연까지 열거됨을

본인은 무용계의 한자락 희망을 본 듯합니다.

이 공연을 계기로 앞으로의 발전에 디딤돌이 되길 바라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에 한국의 무용계를 이끌어갈 것을 기대하며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정 유 영(창원대 교수)

재현이를 보면 요즘 젊은이들처럼 돈때문에 고민하며 살고 있는것 같지 않다. 춤만 추고 있다.

돈도 밥도 그저 하늘에서 떨어져 필요한 만큼 주워 쓰는 아이 같다.

난 그런 구석이 있는 재현이가 좋다.

군대가는 몇일전까지 춤공연 준비하느라 입안이 다 헐어있다.

더 열심히 추어야만 군대에 갈 수 있는 줄 아는 아이같다.

재현이만의 움직임을 가진, 재현이의 춤을 보면 요즘생각을 읽어낸다.

개인성과 솔직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술가의 기질로 드러난다.

재현이의 열병에 모든이들이 다 모여들어 야단법석을 떨었음 신나겠다.

다가올 모든 순간들에도 후끈후끈 전해질 수 있는

사랑의 열병을 품고있길 바라본다.

공연 축하하며 더 열심히 춤추어야 군대 잘 갔다올수 있을거야.

재현아!

함께하는 무용수들에게도 그렇게 말해보렴.

선생님이 억수비 오는날 재현에게 탕수육을 얻어 먹으면서... 2003. 5. 7

박은화(현대무용단 자유 예술감독)

열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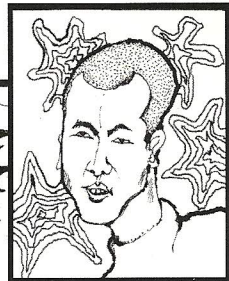
- 1장 너희는
- 2장 열병에 걸린
- 3장 오래전
- 4장 그곳에서
- 5장 왜!
- 6장 ..., (푸르른 날)



강모세
▶▶그간 함께 웃고 즐겼던 이길 앞에서... 지금은... 나홀로 서서 외로워 함에 이제는... 이제는... 잊고 살아가야만 할 길인듯...!!



강정일
▶▶fly-tey@hanmail.net



김태희
▶▶rora0107@hanamil.net



박광호
▶▶나를 정말 사랑하지 않는다면 .. 거짓말을 해주세요



신지현
▶▶시키는대로만 했습니다



박재현
▶▶내가 시켰습니다. lkjh78@hanmail.net

출연 강모세 강정일 김태희 박광호 신지현 박재현
 고마우신 분들 부산대 교수님들, 창원대 교수님들, 홍순미, 신병철, 김추자, 진영아 작은방, A-art, 이상우
 감독 채정완 조명 권성훈 촬영 정병철 음향 윤혜진